

社會의 病的 現象 (八)

獨逸에서

哲學博士 李灌鎔(寄)

歐洲人과 東亞思想 (續)

그런 故로 老列莊의 歐洲語 翻譯은 數十 餘種에 達하고(『老子道德經』 翻譯은 五十餘種이라 합니다.) 唐詩로는 李白, 杜甫, 王維, 王昌齡 등이 特히 愛讀되며 此等 詩集의 翻譯은 『新世界的 發見』과 갓치 生覺합니다. 印度文學은 『쇼펜하우어』 以後에 大한 歡迎을 受하얏는데, 只今에도 그 古代 宗教思想을 衷心으로 崇拜합니다. 唯物論과 機械的 生活에 窒息을 當하야 精神生活에 飢渴을 感하든 歐洲人의 心靈이 印度의 神秘的 純情思潮를 歡迎함은 大概 우리도 想像할 수가 잇습니다. 타구어氏는 歐羅巴에 講演旅行을 하고 歐洲에게 東亞文化를 受하라고 宣布하얏습니다. 歡迎도 만히 바닷거니와(君王의 招待外에 甚至於 『다구어』라는 兒名과 煙草名까지 現出하얏습니다.) 또 歐洲人으로 하야금 落望도 만히 식히엿습니다. 歐洲人은 그 歐洲旅行 前에는 氏를 一聖人과 갓치 生覺하얏습니다. 그러나 그 講演時에는 이 生覺을 滿足케하지 못 하얏고, 도리혀 感情을 害하얏습니다. 너희들 歐洲人의 所謂 文明이란 것은 非道에 陷하얏고 너희들의 文化는 破産을 當하얏다. 우리 東亞敎化를 採用하라 하는 뜻으로 歐洲에서 歐洲를 無限히 攻擊하얏습니다. 歷史的 哲學的 理由로 그를 說明이나 하얏드면 或 無難하얏슬는지 모르나. 歐洲文明의 破産된 理由를 다만 戰爭 二字로 攻擊하얏스매 그 感情이 엇지 傷하지 아니하겠슴닛가? 其外에 仇후明(北京)氏가 外國語로 著書하야 歐洲文明의 非道非理함과 中國文化의 優勝함을 論하고, 甚至於 梁啓超氏까지도 너희들 歐洲人의 社會主義보다는 中國의 井田法이 優勝하다 하얏스니, 아모리 寬大한 歐洲人인들 엇지 感情的 激昂이 업겠슴닛가? 新聞紙上에는 『我 歐洲 文明을 保護』하자하는 論說까지도 一時 流行된 일이 잇섯습니다. 이러매 潔白하든 『東洋의 禮讓』도 좀 감이 썩러젓습니다.

歐洲人の自尊心

이러한 評論과 이러한 態度는 歐洲人の 自尊心이 如何히 깊은 根據를 有하는지를 理解치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有史 以來로 人類文化의 何方面을 觀察하든지 그 物質的 文明을 觀察하든지 그 文化的 豊富를 觀察하든지 이 地球上의 何國民 何人種이 如斯히 巨大한 功績을 成就하였는가 하고 自問합니다. 汽船, 汽車, 無線電話, 飛行機 등은 姑捨하고 國家組織과 社會制度의 發展의 基礎라든지 教育制度의 精密함과 科學界의 超人的 智慧라든지 는 論外에 置하고라도, 歐洲人は 『호메어[homer]』의 詩集을 讀할 때마다 『버길루스』와 『산테[단테]』의 名을 記憶할 때마다 『웁스피아[세익스피어]』, 『몰리에얼[몰리에르]』를 誦할때마다, 『외테[괴테]』 『실러』를 仰慕할 때마다 『탈리스[탈레스]』 以後 『플라톤』, 『아리스토틔레스』를 經由하여 『셰카르트[데카르트]』, 『로크』, 『휴움[흠]』, 『칸트』, 『헤겔』, 『피히테[피히테]』, 『쇼펜하우어[쇼펜하우어]』, 『니체』 등의 巨大한 思想的 建築物을 崇拜할 때마다, 『로마』, 『프어렌세[피렌체]』, 『파리』, 『뮌헨』 等 各 都市의 美術館에 入할 때마다 音樂會에서 『세토벤[베토벤]』, 『바그너[바그너]』, 『스트라우스[슈트라우스]』, 『베어디[베어드]』, 『구노』, 『세일리오』 등의 樂詩를 聽할 때마다 精神的 文明으로도 우리 壯美한 歐羅바로구나 합니다. 이러한 歐洲人이 所謂 『有色人種』을 觀察할 때의 그 自尊心은 到底히 屈服치 못할 自然的 自信입니다. 歐洲人을 人類의 腦髓, 人類의 精神으로 比較하고 『有色人種』을 臀胴體로 下視함이 彼等에게는 公理的 眞理가 되었습니니다. 누구든지 東亞 遊覽 後에는 『킵플링[키플링]』의 『東々西々歌』를 誦합니다. 所謂 黃禍論은 歐米 政客의 他目的에 對한 一手段의 要語에 不過하게 되었습니니다. 이제 또 한번 成吉思汗과 拔都 같은 者가 再現하여 歐洲 大陸을 征服하고 歐洲文化를 野蠻으로 患退할 것을 信하는 者는 없습니다. 亞細亞의 物質的 發展이 一進하여 歐洲 諸強國에 反抗하고 原料品の 供給을 拒絕하여 全歐洲의 生活을 困難케 하리라고 信하는 者는 神經過敏者로 嘲笑를 當합니다. 고래도 人種의 增加가 迅速하여 地球 表面의 大部分을 黃色人種이 占領하겠다 하는 政治家, 經濟學者, 動物學者가 업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統計表를 觀하면 百年前에는 人類全體의 六分之一에 未達하든 白人數가 戰爭前에는 三分之一을 超過하게 되었스니, 그러면 白人의 增加가 오히려 有色人種의 增加보다 幾倍나 되지아니 합니니다.